금호아시아나그룹 내일 창립 60주년

"석유화학·건설 주력업종으로"

중고택시 2대로 시작해 22개社로 성장
메세나 선구자…성과위주 책임경영 구축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7일로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그룹은 1946년 4월7일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17만원의 자본금으로 미국산 중고택시 두 대를 사들여 광주택시를 설립하면서 출발했다.

박 회장은 1948년에는 광주여객을 설립, 버스 운수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여객 운송업의 토대를 굳히고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등을 잇달아 설립하며 1973년에는 6개사로 본격적인 그룹체제를 확립했다.

90년대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적인 항공사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금호타이어와 금호고속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나갔다. 2005년말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등 총 2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특히 그룹은 1977년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30여년 동안 학술연구와 교육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음악영재 연주기회 확대 및 후원, 금호미술관을 통한 다양한 기획전시 및 신진 유망작가 발굴 등 한국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활동을 펼쳐 기업메세나 활동의 선구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룹 총수도 세번이나 바뀌었다. 고 박인천 창업회장이 1984년 영면하자 첫째 아들인 고 박성용 명예회장이 뒤를 이었고 1996년 둘째 동생인 고 박정구 회장, 2002년 셋째인 박삼구 회장으로 이어지면서 형제경영의 전통을 쌓고 있다.

지난 2월 그룹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CI 선포와 함께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양대 지주회사체제를 확립, 업종별 수직계열화를 통한 지분구조의 단순화를 도모하고 성과 위주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조직의 군살을 빼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통운과 대우건설 인수를 준비하는 등 핵심사업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이한 만큼 지탄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건실하고 신뢰받는 기업,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룹은 창립 60주년 기념일인 7일 특별한 행사없이 조용한 가운데 회갑을 자축할 계획이다. 그룹측은 "이미 기업 CI 선포식 등 관련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창립일에는 특별히 준비된 행사는 없다"며 "다만 박삼구 회장이 사내 통신망을 통해 그룹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월1일 그룹CI 선포식에서 사기를 흔들어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 해외공략 차질

기아차 미국공장 기공식 연기

현대차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일부사업에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시에 들어설 공장의 착공식을 연기해 달라고 조지아주측에 요청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13일 미국 조지아주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웨스트포인트시에 총 12억달러를 투자, 270만평 부지위에 90만평 규모의 공장을 2009년까지 짓기로 하고 26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앨라배마주 피닉스의 제프 하딘 시장을 비롯한 현지의 관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방한, 기아차의 납품업체(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공장 유치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말 기아차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당초 피닉스시 관계자들은 정몽구 회장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지난주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의 가동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협의결과 부정적인 반응을 얻어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대차는 이달중 중국 베이징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중국 제2공장 건립을 위한 수순을 마무리해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이후 특별한 진전없이 사실상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판매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차의 3월 내수 점유율은 49.5%를 기록, 6개월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기아차의 점유율도 2월(25%)보다 떨어진 23.7%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油價·원자재가 상승
지방 中企 최대 애로

지방 중소기업들은 올해 최대 경영애로요인으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6대 광역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500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중소기업 애로요인과 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기업들은 올해 예상되는 주요 경영애로요인으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32.8%) '자금난'(28.6%), '인력난'(20.5%), '환율'(10.7%), '정부규제'(4.9%) 등을 꼽았다.

지방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경영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37.7%), '자금난'(27.2%), '인력난'(17.0%)을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자재난은 다소 완화되는 반면, 자금난과 인력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경영여건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6.9%,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6.6%,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은 대전(38.6%), 광주(32.9%), 인천(28.6%)이며, 개선응답이 낮은 지역은 부산(17.1%), 울산(20.0%), 대구(21.4%)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 LG카드 인수전 참여

농협이 LG카드 인수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등 M&A(인수·합병)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당초 유력한 주자로 거론됐던 우리금융지주가 다소 주춤한 사이 신한금융지주가 반발짝 앞서고 있었지만 농협, 하나금융지주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외국계 금융사들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형국이다.

농협 고위관계자는 5일 "LG카드 인수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타진하고 있다"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 세계 첫 'UMTS 미디어폰' 성공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UMTS방식 미디어플로(MediaFLO)폰'을 개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정보통신전시회인 'CTIA Wireless 2006'에서 시연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UMTS 미디어플로폰은 '3세대 이동통신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기술에 퀄컴의 모바일 TV 기술인 미디어플로 방식을 접목한 제품이다. /연합뉴스

외환당국 자만에 기업들 '실망 매물'

■ 환율 950원대 급락

배당금 수요 정보 흘려 쏠림현상 촉발
"전망 잘못해 시장 불안" 수출기업 원성

5일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째 하락하며 8년반만에 960원선을 밑돌자 외환당국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3~4월 환율 상승' 전망을 믿고 기다렸다가 눈물을 머금고 싼값에 달러를 팔아야했기 때문이다.

전날 두달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957.30원으로 떨어지며 지난 97년 10월28일이후 8년5개월여만에 950원대로 진입했다.

환율이 지난달 30일 976.1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데는 수출기업들의 실망매물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말부터 외국인 주식배당금 역송금 수요유입을 기대한 채 달러매도를 미뤘던 기업들이 외국인 주식매수분 유입에 따른 환율급락에 놀라 대거 손절매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 상승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자신감이 기업들의 실망매물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는 지난 2월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올해 평균환율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3,4월에는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972원선이던 환율은 한달 뒤 980원선으로 소폭 상승하며 박 전 총재 전망이 들어맞는 듯 했다.

그러나 980원대 환율은 '4일 천하'에 그쳤고,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며 950원대로 떨어졌다. 올들어 전날까지 연 평균환율은 977원으로 지난해 1천24원에 비해 47원이나 낮아 작년 수준을 회복할 지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권태신 제2차관 역시 지난달 24일 "원·달러 하락에 대해 너무 불안해 하면서 움직이면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해 실망매물 유입에 일조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도 "당국이 친절하게 배당금 수요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이 쏠림현상을 촉발시켜 환율급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실망매물에 따른 환율급락을 막느라 이틀째 개입에 나서 세금도 낭비한 꼴"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의 투기적 매도세에 대한 원망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이광주 국제국장은 "주식배당 수요가 예정된 지난달 31일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가 사상최대 수준인 20억달러에 달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주식매수세와 사상최대 수출 실적, 콜금리 인상 가능성 등 3대 요인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고 있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간산업 M&A 외국자본 규제해야

윤증현 금감위원장 밝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경행사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를 규제하는 미국의 액슨-플로리어법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방송·통신·전력 등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좀더 보완하고 업종을 심도있게 들여다봐서 기간산업 범주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국적 자본의 국내시장 교란 문제와 관련, "우리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문성을 가져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위해 규제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부터 금융감독과 관련해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지원단을 만들어 여기에서 규제와 관련한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자본들이 규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 실무자선에서 책임을 지고 바로 관련 서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포스코 니켈광산 개발

업계 최초…광양에 제련공장 건설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주원료인 니켈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를 위해 스테인리스업계에서 처음으로 니켈광산을 직접 개발, 제련하는 사업에 진출한다.

포스코는 5일 포스코센터에서 권영태 전무와 뉴칼레도니아 최대의 니켈광 수출회사인 SMSP사의 양드레 당 사장이 니켈광산 및 제련회사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계약에 따라 포스코는 이달중 니켈 제련공장 건설비 3억5천200만달러를, SMSP사는 광권을 현물로 각각 출자해 니켈광산과 니켈 제련 합작법인을 뉴칼레도니아와 한국에 각각 설립하게 된다. 법인별 지분은 포스코가 49%, SMSP사가 51%를 갖는다.

포스코와 SMSP사는 니켈 제련공장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내년 착공, 2008년말 완공하고 연 3만t의 니켈을 생산, 포스코에 공급할 계획이다. 니켈 제련에 필요한 광석은 30년간 전량 뉴칼레도니아 광산에서 공급받는다.

니켈은 내식성과 내열성을 강화시키는 성질이 있어 스테인리스강을 만드는 필수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식시장과 같은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투기자금 등에 의해 가격이 많이 상승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형 원료공급사의 과점화, 중국의 수요급증, 자원의 내셔널리즘 확산에 따라 니켈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새 복권 이름 '팝콘' '스피또'

17일부터 판매

추첨식과 즉석식 13종의 복권을 통합한 연합복권의 새 이름이 '팝콘'과 '스피또'로 확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연합복권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공모를 통해 추첨식 1종은 '팝콘복권'으로, 즉석식 3종은 각각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등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권의 원조격인 주택복권 등 기존 13종의 인쇄복권 상품이 없어지는 대신 4종의 신형 복권이 오는 17일부터 시중에 선보이게 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팝콘'은 펑펑터지는 팝콘의 속성처럼 즐거움이 터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스피또'는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피드와 복권을 연상시키는 로또의 합성어에 판매가격을 붙여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인포드림넷㈜	하나로텔레콤(광주) 인바운드 상담사원(남,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6	062-236-0217
㈜호원	자재관리(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62-945-8311
글로벌광통신㈜	광기술벤처회사-생산/품질/자재 및 물류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62-973-6114
성수기공㈜	공사업무, 도서작성, 오토캐드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08	010-2440-0111
OA기획	사무보조(남)/경리(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8	062-384-7701
현대산업주식회사	고려시멘트 계열 레미콘사 신입 경력사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09	062-519-1440
후지제록스호남 주식회사	Service Engineer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09	062-365-3500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유학상담 및 관리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233-8171
㈜휴로넷	[주5일/정규]SK텔레콤[광주]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10	02-780-9595
굿모닝 빛고을	[코디아텍(주)] 사무/총무(女) 및 영업사원(男)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374-9454
LG이노텍	자금/MCM개발/구매/SCP 생산관리/해외영업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2-3777-0153
다른정보기술㈜	[광주/전남]pc/네트웍/서버 운영요원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4/14	02-825-483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